



# '91년 국제유가 전망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올해의 국제유가는 원활한 수급과 종전이후 불안 심리 해소로 가격 하락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국제 유가는 적정가격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금년도 석유시장이 다음 3가지 안정 요인에 바탕하여 형성되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즉, ①유가에 미치는 심리적 불확실성 축소, ②석유시장에 대한 사우디 지배력의 절대적인 우위, ③유가 결정에 관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의사교환 촉진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수급요인과 심리요인의 두 복합 작용으로 결정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후자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었다. 1989년 3월의 발데즈항 원유 누출 사고, 1989년 4월의 북해 유전사고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과거 유가 동향을 살펴보면 작은 사고 또는 공급장애 우려가 의외로 큰 가격상승을 초래했던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유가상승이 극심했던 기간은 1990년 8월 2일(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부터 1991년 1월 16일(걸프전쟁 발발) 기간 동안이었다. 그 기간중 실질적 공급부족사태는 없었는데도 시장에는 10달러내외의 불안가격이 반영, 국제유가는 30달러내외를 지속하였다.

걸프전 발발직후 1월17일 유가가 11달러 급락한 것은 이러한 불안 심리가 해소되는데 기인한다(〈표-1〉참조).

걸프사태로 석유시장은 심리적 면역이 강해졌다. 이라크, 쿠웨이트 석유수출 중단에 따른 4백만배럴/일 이상의 갑작스런 공급중단도 견뎌내었으며, 중동 유전지대에서의 전쟁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예상될 수 있는 석유시장의 돌발사태에 대한 소비국의 대응능력을 높였으며, 이는 유가급등을 저지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4분기 현재 자유세계의 총 석유소비비는 걸프전쟁의 영향과 소비국의 절약노력 결과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30만 B/D 정도 감소하였다. 금년 전체의 자유세계 석유소비비는 53.5백만 B/D로서 0.4%의 미증이 예상된다(연간 석유소비 증가율 : 1988년 3.6% 1989년 2.1%, 1990년 1.1%). 석유소비 정체는 금년 상반기 내지 3/4분기까지 계속되다가 4/4분기 이후는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표-2〉 참조).

현재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제외한 OPEC(석유수출국 기구)의 산유량은 지난해 7월 총회에서 결정된 생산쿼타 총량보다 0.5백만 B/D가 초과된 23백만 B/D 수준이며 OPEC 평균유가는 17달러 내외에서 약세를 나타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같은 가격약세는 현재의 수급상황이 석유소비 감소와 공급증대에 힘입어 완화되고 있는데다가 종전이후 예상되는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생산재개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3, 4월부터는 계절적 비수기가 시작됨으로써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압력도 반영, 일시적으로는 15달러 혹은 그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석유시장의 관심은 걸프전 이후 OPEC의 역할에 모아지고 있다. 종전 이후 OPEC측에서 본 바람직한 석유시황은 배럴당 21달러 수준의 기준유가유지와 OPEC 회원국의 쿼타준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OPEC가 가격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유량을 줄여야 하고 특히 21달러의 기준유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쿼타총량보다 훨씬 낮은 약 21백만 B/D의 생산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1~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OPEC 감시위원회는 종전 이후 최초의 공식 회담으로서 향후 OPEC 정책방향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석유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회의에는 OPEC 13개국 중 12개국 석유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이라크는 불참하였다. OPEC 감시위원회는 2/4분기 생산 쿼타를 22.3백만 B/D로 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70만 B/D 정도의 감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3〉 참조).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실효성도 다소 의문시되며, 유가를 부추기는데는 미흡하다. 이번 회의는 임시총회가 아닌 시장감시위원회(회의 성격을 임시총회로 전환하리라고 기대되었으나 사우디, 이란이 이라크 불참을 이유로 이에 반대)에 불과하며, 상기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란과 알제리는 상기 합의의 감산규모가 유가 안정을 기하는데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회의과정중 나타난 최대 산유국 사우디의 태도

(감산에 소극적)는 나머지 회원국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OPEC 회원국들은 유가방어를 위한 2/4분기 생산규모는 21~22백만 B/D이라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하였으나 그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쿼타 초과생산이 가장 큰 사우디가 양보하면(즉, 사우디 생산이 6.7~7.0백만 B/D 수준 유지),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사우디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쿼타 재조정은 사우디 주장이 크게 반영되어 걸프사태중 산유량(23.4백만 B/D)에서 5%를 일률적으로 감산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이라크, 쿠웨이트는 2/4분기중 석유수출 재개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쿼타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월중 OPEC 원유생산은 23백만 B/D(사우디 8.3백만 B/D)이었는데, OPEC가 상기 합의를 지킨다면 2/4분기 유가는 더 이상의 하락압력을 받지 않고 현 수준(OPEC 평균 17~18달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 이외의 회원국 특히 비중동 OPEC는 현재의 생산형태를 지속하기 쉽다. 비중동 OPEC 회원국은 현재 약 110만 B/D를 초과 생산중이며, 초과물량을 향후 쿼타조정시 자국의 쿼타 확대로 연결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산유량 감축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들이 합의를 안키더라도 개별 국가의 쿼타초과수준은 5만 B/D 내외의 작은 물량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향후 OPEC 생산량은 22.5~23백만 B/D 수준 지속이 예상된다. 사우디의 0.3백만 B/D 감산과 기타 회원국의 상징적인 감산을 반영한 판단이다. 그 결과, 수급요인상 2/4분기 유가는 15~18달러를 중심으로 한 약세가 유력시된다. 쿼타 재조정 문제는 6월의 제 89차 OPEC 정기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가 약세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종전 이후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유가붕괴가 초래될 것 같지는 않다. 과거 석유시장에는 두 차례의 유가붕괴가

있었다. 1986년 여름과 1988년 가을이 그것이다. 전자는 80년대 전반의 고유가로 석유소비가 줄어들고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10백만 B/D를 넘어서자 OPEC가 시장확대를 겨냥하여 비 OPEC과 증산경쟁을 벌인 것이고, 후자는 이란-이라크 종전(1988년 8월) 이후 재편되는 OPEC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OPEC 내부의 증산경쟁이 그 원인이었다. 어느 경우나 사우디를 비롯하여 다수의 경쟁상대가 있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사우디만이 유일하게 대량의 잉여공급능력을 갖고 있다. 또 과거에는 유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사우디의 희생(SWING PRODUCER 역할, 자국 쿼타 미달 생산)이 요구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우디는 자국의 기존 쿼타(5.38백만 B/D, 점유율 23.92%)를 충분히 넘은 수준에서 여유있게 공급조절(공급조절능력 3.5백만 B/D)을 함으로써 적정 범위내의 유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표-4 참조). 국제 유가가 어느 한도를 벗어나 하락할 경우(예컨대 OPEC평균 15달러 이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유가회복 노력이 본격화 될 것이다.

전후 복구기간을 감안할 때,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생산이 전전수준(최대 4.2백 B/D)까지 회복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쿠웨이트는 950여개 유정중 80~85%가 화재 등 손상을 입었으며, 완전 복구에는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라크의 석유생산시설도 3분의 2가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중동 OPEC 회원국이 감산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2개국이 이라크, 쿠웨이트 생산재개 속도에 맞추어 산유량을 조절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하락 방지는 기대할 수 있다. 걸프사태가 쿼타 위반과 유가약세를 빌미로 발생하였음을 상기할 때, 종전 이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OPEC 국가가 산유량 감산에 노력할 가능성은 크다. 이는 종전 이후에 예상되는 유가약세의 상황에서 쿼타위반을 계속함으로써 주변국들의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 OPEC 산유국의 석유 생산행태도 유가하락을 저지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노르웨이 등 북해유전(3.8백만 B/D 생산)은 약천후와 시설 노후화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또, 자유세계에 대한 공산권 순수출도 1990년의 2.0백만 B/D에서 금년에는 1.2백만 B/D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동구개혁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와 소련의 석유생산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련의 석유생산은 시설노후화와 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장을 받아 왔는데 최근의 민족분규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등 민족분규가 심한 지역은 소련내 석유생산기재 산업의 중심으로서 이 지역의 산업활동위축은 곧 소련 석유생산 장애와 직결될 수 있다.

또 종전후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커진 미국과 영국이 석유의 주요 소비국인 동시에 산유국이며, 중동 오일머니의 우선적인 유입국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낮은 유가는 이들 선진국에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성있는 유가 시나리오를 즉각적인 대규모의 산유량 감축도 아니고 공급과잉상태도 아닌 안정 공급범위, 즉 이라크, 쿠웨이트의 원유생산 재개속도와 사우디가 중심이 된 증산국의 감산속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종합해 볼 때, 금년도 유가는 배럴당 15~21달러의 폭넓은 변동범위를 가질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감산의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국의 이해가 다같이 부합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종전 이후 OPEC과 소비국간의 협력방안 모색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전후 복구, OPEC 원유생산 능력확대, 소비국에 대한 OPEC의 하류부문 진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OPEC과 소비국간의 협력과정에서 유가결정에 관한 소비국 영향력도 좀더 확대될 수 있다. OPEC 평균유가 18달러 내지 20달러가 양측의 공통적인 수용범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

<표-1>

현 물 유 가 추 이

(단위 : \$)

	WTI	Brent	Dubai	OPEC 평균
1989 년	19.64	18.23	15.65	16.56
1990 년	24.34	23.46	20.26	21.27
1 월	22.75	21.12	17.39	19.04
2 월	22.05	19.69	18.63	18.06
3 월	20.36	18.30	15.75	16.87
4 월	18.68	16.49	14.36	14.92
5 월	18.30	16.31	14.51	14.71
6 월	16.79	15.05	13.23	13.28
7 월	18.23	16.87	14.95	15.13
7/6	16.46	15.48	13.49	13.58
7/13	18.38	17.42	14.96	13.90
7/20	19.09	18.12	16.18	15.64
7/27	20.09	18.92	16.73	17.38
7/30	20.26	19.15	16.93	
7/31	20.75	19.49	17.05	
8/1	21.65	20.58	18.27	
8/2	23.32	22.20	19.45	
8/3	23.79	22.75	19.80	17.93
8/10	29.39	25.70	22.72	23.60
8 월	26.49	26.12	24.10	24.47
9 월	32.91	34.55	29.81	31.12
10 월	36.03	36.16	31.51	33.15
11 월	32.19	32.71	27.64	29.62
12 월	27.33	28.16	23.19	24.92
1991 년				
1 월	25.29	23.00	19.65	
1/15(화)	30.05	28.70	24.20	
1/16(수)	32.32	30.23	25.33	
1 /17(목)	21.11	19.30	14.50	
1 /18(금)	19.55	17.70	14.12	23.52
1 /25(금)	24.15	20.50	18.05	17.50
2 월	20.49	20.21	14.26	16.21
2/1 (금)	21.36	20.87	15.81	17.85
2/8 (금)	12.82	21.55	15.31	17.24
2/15(금)	20.73	17.33	13.20	17.36
2/22(금)	17.59	17.25	12.90	16.64
3/1 (금)	19.45	19.97	14.82	15.09
3/4 (월)	20.32	20.70	15.40	
3/5 (화)	20.33	20.85	15.41	
3/6 (수)	19.77	20.70	15.07	
3/7 (목)	19.35	20.27	14.62	
3/8 (금)	19.33	20.55	14.61	16.77
3/11(월)	18.98	18.33	14.00	
3/12(화)	19.78	19.27	14.57	
3/13(수)	20.47	20.22	15.12	
3/14(목)	20.09	19.53	14.82	
3/15(금)	19.90	18.48	14.27	

〈표-2〉

석유수급전망

(단위 : 백만 b/d)

	1990년 4/4	1991년 1/4	2/4	3/4	4/4	연간
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53.2 1.1	53.8 -1.3	52.3 0.0	53.1 -0.6	54.6 2.4	53.5 0.4
공급	54.3	53.1	52.0	52.8	53.0	52.8
非 OPEC 공급	31.2	30.1	30.1	30.3	30.5	30.2
OPEC 원유	23.1	23.0	22.6	22.5	22.5	22.6
재고변동	1.1	-0.7	0.3	-0.3	-1.6	-0.7
자유세계석유재고 (백만배럴)	5,267	5,204	5,222	5,185	5,035	
상업적유상재고 (전년동기대비증감) (백만배럴)	2,972 +70	2,974 +131	3,007 0	2,985 +18	2,865 -107	
재고일수 (일)	56	57	57	55	53	

〈표-3〉

OPEC쿼타 및 최근 원유 생산실적

(단위 : 만 b/d)

	원유생산		1991년 쿼타	
	1990. 12월	2월	1/4 분기	2/4 분기
사우디	840	830	538.0 (23.92)	803.4 (36.0)
이란	320	300	314.0 (13.95)	321.7 (14.4)
이라크	45	20	314.0 (13.95)	0 (0.0)
쿠웨이트	25	5	150.0 (6.66)	0 (0.0)
아랍에미리트	230	245	150.0 (6.60)	232.0 (10.4)
카타르	37.5	40	37.1 (1.65)	39.0 (1.8)
나이지리아	190	190	161.1 (7.16)	184.0 (8.3)
리비아	147	150	123.3 (5.48)	142.5 (6.4)
알제리	80	80	82.7 (3.67)	82.7 (6.7)
가봉	30	30	19.7 (0.88)	28.5 (1.3)
베네수엘라	233	240	194.5 (8.64)	223.5 (10.0)
에콰도르	29.5	30	27.3 (1.21)	27.3 (1.2)
인도네시아	144	140	137.4 (6.11)	144.3 (6.5)
합계	2,351	2,300	2,249.1 (100.0)	2,229.8 (100)

<표-4>

걸프사태 전후의 OPEC 석유관련지표 변화

(단위 : 백만 b/d)

	산 유 능 력		걸프사태이후 최고산유량 (90. 12)	쿼 타	초과생산
	A	B			
중 동 O P E C	20.6	15.3	15.0	15.031	-0.031
사 우 디	8.5	8.5	8.4	5.38	3.02
이 란	3.3	3.3	3.3	3.14	0.16
이 라 크	3.5	0.6	0.4	3.14	-2.74
쿠 웨 이 트	2.4	0.0	0.0	1.5	-1.4
카 타 르	0.4	0.4	0.4	0.371	0.029
아랍에미리트	2.5	2.5	2.4	1.5	0.9
非中東 O P E C	8.5	8.5	8.4	7.46	0.94
총 계	29.1	23.8	23.4	22.491	0.909
中東 O P E C / 非中東 O P E C	2.4	1.8	1.8	2.0	-

주) A는 사태이전의 산유능력, B는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산유능력, 석유 생산은 NGL 및 Condensates 제외.

자료 : PEL(NO 4, 1990) 및 PEL TELEX



## 올바른 電話 응대법

### 상대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전화는 서로 상대의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더욱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친절한 마음씨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잘만 쓰면 아주 편리한 전화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즉시 받는다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가능한한 빨리수화기를 들고 『네, ○○회사 ○○과 ○○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 메모를 습관화한다

전화의 약점인 기록성이 없음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메모가 절대 필요하다. 이때 메모의 요점은 ①상대쪽

의 전화번호 ②소속부서·담당자이름 ③본일의 내용 특히 인명, 일시, 숫자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빨리바꿔준다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를 바꿔줄 경우는 이야기의 요점을 말하기전에 바꿔준다. 같은것을 몇번이고 이야기하게 하는것 이상의 불친절도 없기 때문이다.

#### 不在중엔 친절하게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재빨리 부재의 이유를 전하는 동시에 『○○씨는 외출중입니다만 메모를 남겨 두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까요』라고 친절하게 여쭙는다.

#### 건쪽에서 끊는다

상대가 고객이나 윗사람인 때는 상대가 수화기를 놓고 나서 이쪽이 놓는것이 상식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건쪽에서 먼저 끊는것이 原則이다.